

“믿을 수 없다” “안타깝다” 망연자실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광주·전남 지역민 반응

“무리한 검찰 수사가 빚은 비극” 격앙

광주 곳곳 분향소 ... 시민들 애도 행렬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전남 지역 각계 인사들과 지역민들은 충격 속에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인터넷 주요 포털과 커뮤니티에는 애도의 글이 이어졌으며, 일각에선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초래된 결과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노영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선구자적 역할을 통해 ‘불생불멸’의 삶을 실천해왔는데, 안타깝다”며 “본인을 희생함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역사가 평가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광장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착잡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며 “한국의 비극적인 정치현실이 씻을 수 없는 역사적 불행과 추산할 수조차 없는 국가이미지 손실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홍명 조선대 교수(정치외교학부)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견뎌내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고초 때문에 그 같은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정치인이되,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노 전 대통령은 재벌과의 유착이 없었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자유로운 정치인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류동훈 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무처장은 “한국 정치사에 최대 오점이 될 믿기지 않는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국민적 존경 속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퇴임 후에는 행복하게 말년을 보낼 수 있는 풍토가 아쉽다”고 비판했다.

광주광산경찰 김철(32) 경장은 “도무지 믿기지 않은 충격적인 소식이다. 비통하고 애석한 일”이라며 “어떻게 말을 해야될지 모르겠다. ‘안타깝다’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회사원 정승현(36·광주시 서구 농성동)씨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국정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 대통령”이라며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이 사는 봉하마을에 꼭 한 번 가 보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슬프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생 최 강(26)씨는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이보다 더한 부정부패를 저질러 수 천억원을 챙긴 대통령도 살아있는데, 나름대로 청렴과 원칙을 강조했던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침통해했다.

누리꾼들도 큰 충격에 빠졌다.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많은 누리꾼들이 인터넷포털에 추모의 글을 올린 가운데, 일부 누리꾼은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날 네이버·다음·싸이월드 등 주요 인터넷포털에는 노 전 대통령 관련 기사마다 수천명의 누리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했다. 상당수 누리꾼들은 추모의 뜻으로 각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에 ‘검은 리본(▶▶)’을 달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셀온라인”이란 ID의 누리꾼은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하다”면서 “넉을 보내는 게 서러워 목놓아 울어본다”고 애도를 표시했다.

또 한 누리꾼은 “현 정권이 노 전 대통령을 죽였다. 절대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분노했다.

일부 누리꾼은 부정적인 반응도 내비쳤다. 한 누리꾼은 “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 전 대통령의 팬클럽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과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의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해 다운되기도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명복을 빕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3일 광주 시내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대학생 등 추모객 50여명이 광주 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촛불과 영정을 들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이 잠드소서”... 조문객 100여m 장사진

광주·전남 밤 늦도록 추모 물결

권위와 지역주의의 벽에 도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3일, 광주·전남지역에도 추모 물결이 끊이지 않았다.

‘5·18 민주화운동’의 혼이 서린 옛 전남도청과 광주시 동구 학동 민주당 전라남도당 사무실, 원각사 등에 분향소가 마련돼 시민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노사모) 등은 이날 밤 11시 옛 전남도청 정문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을 받았다.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옛 전남도청 주변은 조문 인파로 가득 찼으며 조문객들은 100여m 가량 넘게 꼬리를

물었다. 분향소를 마련한 지 1시간 만에 500여 명의 조문객이 옛 전남도청 분향소를 찾았다.

조문객 이근선(32·광주시 남구 백운동)씨는 “너무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라며 “경남 봉하마을에서 밀짚모자에 자전거를 타고 사저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멀리서 손짓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인간적인 모습이 참 좋았는데, 이런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통해 했다.

또 다른 조문객 이호창(45·북구 두암동)씨는 “처음 비보를 접했을 때 믿기지 않았다. 직접 분향소에 오보

니 실감이 난다”라며 “서거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져내렸다. 좋은 대통령이었는데 이렇게 돌아가게 돼 비극적”이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당직자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이날 남도당 사무실에 분향소를 마련해 조문객을 맞았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은 100명. 조문객들은 대개 언론 등을 통해 서거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이었다.

조문객 상당수는 사무실에 비치된 방명록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게 영원한 안식을...’ ‘고이 잠드소서’라고 적었다. 민주당 전남도당 김영동 사무처장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 정부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화합의 정지로 이끌어 가야 한다. 고인에 대한 평가는 먼 훗날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광주시 동구 송광사 광주교당 원각사와 민주당 광주시당 남도당 사무실에 분향소가 설치됐다. 노사모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24일 오전 11시 옛 전남도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향후 일정과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시민, 노사모 회원 등 40명으로 구성된 조문객들과 함께 조문을 위해 경남 봉하마을로 떠날 계획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여대생 조문객 빈소에 담배 한 갑

○광주의 한 여대생이 광주시 동구 학동 민주당 전라남도당 사무실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평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피우던 담배 한 갑을 바쳐 눈길.

○24일 오후 9시 민주당 전남도당 내 분향소를 찾은 김다미(여·22·광주대 문헌정보학과 3년)씨는 분향소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향해 예(禮)를 갖춘 뒤 미리 준비해온 담배 한 갑을 영정사진 옆에 올려 주위를 숙연케 했다.

○김씨는 언론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생(生)을 마감하기 직전 담배 한 개비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넷에서 평소 즐겨 피우던 담배가 무엇인지 알아내 분향소를 찾았다고.

○김씨는 “노 전 대통령이 마지막 가는 길에 담배 한 개피 피우지 못하고 간 게 가슴 아왔다”며 “너무 안타깝고 애석할 뿐”이라고 눈물.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최상의 스크린 골프클럽이 당신을 "VVIP"로 모십니다!!

SGJ

서원로 30번 2층 (광주) 010-654-0742

010-3096-0060

미안민족 담 하나의 모방할 수 없는 탁월 기술, 척추 건강을 위한 의자 선택 - 바우인닥터

바우인닥터는 올바른 척추 보호 뿐만 아니라 이미 흐트러진 체형도 바로 잡아줍니다.

이루의 정반은 앉아있는 사람 바우인닥터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민매처: 남광주사거리 인보가구 062)225-5100

www.bauindactor.com